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재난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능력을 키우는
「행복지킴이!」 「안전한국 훈련!」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이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는 2만 5천여 명의 사상자와 280조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으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쓰촨성 지역도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오늘날 재난은 대형화, 다양화, 발생 빈도의 급증 등 예상을 뛰어 넘는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은 미리 대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정부와 각급 기관과의 재난 협력 대응 체제를 점검하여 각종재난에 대비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재난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능력을 키우는
「행복지킴이!」 「안전한국 훈련!」

우리 교육청은 본청과 북부청사, 25개 지역교육청,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4,346개 학교가 참여하여 「풍수해 등 자연 재해 대비·대응 훈련」과 「학교현장 지진, 민방공 대피훈련」 「학생 안전분야, 식중독, 감염병,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급학교에서는 이번훈련 기간에 재난 관련 안전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심폐소생술 및 재난체험,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학교와 교직원들은 학교현장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조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비한 재난 안전의식을 높여주고 다양한 상황발생시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게 위기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입니다.

이번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학생과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리하는 재난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고 성공적인 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경기도 교육감 김 상 곤 김 상 곤